

공정위, 기술탈취 대응 틀 바꾼다

감시관 상시투입·피해입증 완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감시관 12명 위촉·현장 감시 강화
익명제보 핫라인으로 신고 확대
입증책임 전환해 中소 부담 완화
피해기업 용자·소송지원 기금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대응체계를 '신고 중심'에서 '선제 감시·직권조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술탈취가 발생하기 전 조기 적발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업종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관은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 현장에서 활동하며,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행위를 포착해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게 된다.

그간 기술탈취 피해에도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다.

감시관은 현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탈취 혐의를 제고하고 제보 내용은 곧바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된다. 또 벤처기업협회 익명제보센터를 신설해 실명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핫라인도 마련한다.

공정위의 기술탈취 조사 및 제재 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량도 대폭 강화한다. 그간 45건의 기술탈취 사건을 제재하고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여전히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빈발업종별 직권조사를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유관기관 협의 내용, 감시관 제보를 종합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기계·전기전자·자동차 부품 등 주요 업종 중심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술탈취 전문조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변리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기존 제도의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가해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행위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독자적 기술개발 과정 등 구체적 행위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

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기술심리관 등)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자료 폐기를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진술녹취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재원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마련,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소송지원·피해예방사업 등도 추진한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사인금지정규제' (하도급법 개정)를 통해 피해기업은 공정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기술탈취 행위 중단이나 금형·제품 폐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경찰청과 정례협의체를 통해 기술탈취 예방·적발·구제 전 과정을 연계하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AI·수소 혁신으로 미래 에너지 주도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개막

한국전력공사가 5일부터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전력·에너지 산업 박람회인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에너지로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를 주제로, 기술·산업·지역·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글로벌 에너지 혁신의 장으로 꾸려진다.

5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기조연사로 나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새로운 글로벌 접근방향을 제시한다. 국내외 전력사 CEO, 주한 대사, 대학총장 등 약 700여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해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 진행되는 '신기술 언팩(Un-packed)' 세션에서는 에너지와 융복합 분야의 혁신 기술이 최초로 공개된다. 인공지능(AI) 추론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Rebellions)과 수소연료전지선박 개발사 빈센(Vinssen)이 대표 주자

로 나선다.

올해 BIXPO에는 국내외 166개 기업과 기관, 대학, 지자체가 참여해 ▲KEPCO관 ▲지역특화산업관 ▲글로벌리더관 ▲딥테크 스타트업 특별관 등을 운영한다.

대기업관에는 LS그룹, 포스코,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이 참여하며, 중소기업관에서는 에너지산업 전 밸류체인을 망라한 AI·로봇·친환경 융복합 기술이 공개된다.

KEPCO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혁신적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이고, 지역특화산업관은 전국 10개 광역지자체의 전력산업과 혁신벤처 제품을 전시한다.

글로벌 리더관에는 미국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AI 유니콘 WEKA, 이스라엘의 초고속 충전 배터리 기업 StoreDot을 비롯해 국내외 유니콘 6개사와 CES 2025 혁신상 수상기업 3곳이 참가, 미래 에너지 신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굴폐각으로 미세먼지 감축

통영시와 순환경제 협력

버려지던 굴폐각을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용 석회석 대체제로 재활용한다. 한국남부발전이 굴폐각 처리가 골칫거리였던 통영시와 손잡고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1석3조' 순환경제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3일 통영시청에서 통영시와 '굴폐각의 석회석 대체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영시의 고질적 환경문제였던 굴폐각 처리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발전소에서는 배출가스 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광산에서 채굴한 석회석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채굴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발생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왼쪽)과 통영시 천영기 시장(오른쪽)이 지난 3일 통영시청에서 '미세먼지 저감용 석회석 대체, 굴폐각 활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부발전

지적돼왔다.

이에 남부발전은 어촌지역에서 다량 발생하지만 재활용이 어려웠던 굴폐각을 대체 자원으로 눈여겨봤다. 지난해부터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굴폐각을 미세먼지 저감용 첨가제로 활용하는 현장 실증을 진행한 결과, 석회석과 동등한 성능을 확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보, '수출성장 플래닛' 23개사 새로 뽑았다

수출금융 100억·보험료 90% 할인
중소·중견 수출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성장 플래닛(Planet)' 회원사 23곳을 새로 선발했다.

무보는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 금융·비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수출성장 플래닛은 무보가 지난해 7

월 출범시킨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육성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수출 규모와 성장단계에 따라 △연간 수출 100만 달러 이하(아미징스타) △3000만 달러 이하(라이징스타) △3000만 달러 이상(샤이닝스타) 등 세 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회원은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 최대 100억원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국외기업 신용조사 30건 무료 제공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출자금 지원 시에는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3년간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과 연대보증 입보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부여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뒷받침한다.

무보는 앞서 지난해 41개사를 첫 대상사로 선정하고 총 1조원 상당의 무역보험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라이징스타 신규 회원사로 선정된 씨제이케이 김상욱 대표는 "수출성장 플래닛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차게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5 푸드워크 코리아’ 성황리 폐막

42개국 950개사·5.6만명 참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코엑스가 공동 개최한 '2025 푸드워크 코리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4일 aT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11월1일 기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올해

푸드워크에는 42개국 9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5만6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식탁: 혁명, 푸드워크가 만드는 내일의 식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제품과 혁신 기술이 전시됐다. 정부와 aT는 푸드테크 정책홍보관, 전략작물 홍보관, 농업과 기업 간 상생 협

력 우수사례 홍보관, 농식품 수출 상담관 등 여러 전시관을 운영했다. 한국 농식품의 가능성 및 다양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특히 A홀 전시장에 마련된 '푸드테크 정책홍보관'에서는 3D 식품 프린팅과 AI 기반 개인 맞춤형 영양분석 서비스 등 최신 푸드테크 기술을 선보여, 급변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부발전, 여성벤처 창업·성장 지원 나서

에너지 신사업·ESG 역량 강화 추진

한국서부발전이 여성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손잡았다.

서부발전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여성벤처 창업·성장 및 동반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실현'에 발맞춰, 여성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양기관은 ▲여성벤처·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동반상생 프로그램 발굴 및 ESG 역량 강화 ▲에너지 기술혁신 및 신사업

창출 ▲여성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에 협력한다.

서부발전은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여성벤처의 안착을 돕기 위해 사업비 지원, 실증장소 제공, 사업화 연계 등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또 발전 관련 정보와 미활용 특허, 협력기관 네트워크 등 보유 자원을 개방해 혁신기술 공동 R&D와 발전 빅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신사업 창출에도 나선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여성벤처기업은 잠재력은 높지만 자금·판로·네트워크 부족으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국가 벤처산업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